

마리 당 1년에 먹는 도토리 무려 60만개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10주년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보고서 보니

지리산 반달곰의 10년간의 생태 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프로젝트 10주년을 맞아 국립생물자원관이 진행한 ‘멸종 위기종 재도입을 위한 서식지 환경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다. 반달곰 복원 사업을 시작한 지난 10년간 지리산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등 발자국을 엿볼 수 있는데, 향후 반달곰 방사 계획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얼 먹고 어떻게 돌아다녔나 = 달콤한 꿀만 찾아다니면서 생존이 어려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반달곰의 먹잇감은 지리산에 널려 있었다.

반달곰 배설물을 분석한 결과, 벌(꿀) 뿐만 아니라 고라니와 족제비, 소나무, 참



벌·고라니·족제비 등 먹잇감만 13종 달해 현재 31마리... 최대 138마리까지 서식 가능
활엽수 우거진 600~1400m 고지대 선호
탐방로 300m 벗어나면 마주칠 확률 7배↑

나무, 도토리 등도 닥치는대로 먹었다. 먹잇감만 13종에 달했다는 게 국립생물자원관 분석 결과다.

도토리는 빼놓을 수 없는 먹잇감으로 분류됐다. 먹이를 찾아 지리산을 휘젓고 다니면서 기존 동물원의 반달곰에 견줘 활동량도 월등하게 높았다.

국립생물자원관이 분석한 연간 기초대사 에너지량은 282만kcal, 에버랜드에 있는 반달가슴곰 에너지량(206만kcal)보다 월등히 높다. 에너지량으로만 보면 마리당 연간 먹어 치울 수 있는 도토리만 무려 59만 5791개에 달했다.

생물자원관은 더 나아가 지리산의 도토리 연간 생산량(약 5억 5000만개)을 감안, 향후 지리산에만 92~138마리까지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먹이 공급과 함께 지리산 반달곰에겐 충분한 활동 반경이 마련돼야 한다. 건강하게 자란 반달곰의 행동 반경은 여름철에는 53.26~61.61km에 이른다. 지리산 전체에 버금가는 규모다. 반면 겨울잠에 드는 겨울철엔 2.83~4.42km으로 활동반경이 대폭 준다. 해발 600~1400m의 고지대를 좋아하고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우거진 곳을 선호한다.

◇지리산길 걷다가 반달곰과 마주할 확률 = 31마리의 반달곰이 살고 있는 지리산에서는 정해진 탐방로를 300m 이상 벗어나면 마주칠 확률이 무려 7배나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산물을 채취하는 주민들은 600m 이하의 저지대를 이용하고 탐방객은 정해진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마주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또 분석 결과와 함께 반달곰과 주민 및 탐방객의 충돌을 막기 위해 구체적 피해사례를 집계, 야생동물 피해방지 법의 제정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004년 복원 프로젝트에 돌입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은 2020년까지 독자 생존이 가능한 50마리의 반달곰을 지리산에 적응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광주 우치동물원 원숭이 우리 쇠창살 없앤다

내년초까지 사파리 형태로 개선

광주우치동물원 원숭이들이 고향의 환경에서 관람객들과 좀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을까.

우치동물원은 11일 기존 쇠창살과 콘크리트 바닥으로 지어진 감옥 형태의 원숭이 우리를 자연친화적인 사파리 형태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치동물원은 내년 초까지 예산 15억 원을 투입, 1200㎡(363평) 규모의 전시장에 원숭이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15m 높이의 정글 탐험대를 만들고 고사목을 심는 등 원숭이들의 서식 환경과 유사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또 쇠창살을 철거하는 대신 방사장 주변에 가로 10m·세로 3m 이상의 투명유리를 설치, 관람객들이 1m 앞에서 원

숭이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엔 망토개코원숭이·일본원숭이·아누비스개코원숭이 등 세 종류의 원숭이 10마리는 비좁은 콘크리트 바닥에 쇠창살이 있는 감옥 형태의 건물에서 지내왔다.

우치동물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원숭이들이 절망으로 둘러싸여 폐쇄적인 좁은 공간에 머물면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관람객들의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우치동물원의 계획대로 원숭이 우리의 시설이 개선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직까지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원숭이 우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연휴 뒤 쓰레기 처리 분주 광주시 북구청 청소행정과 청소민원 이동처리반원들이 11일 용봉동 전남대학교 상대 뒤 원룸촌 인근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쏟아져 나온 각종 생활 쓰레기를 관급봉투에 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성 장흥군수 또 기소...이번엔 허위사실 기재 혐의

김성 장흥군수가 또 기소됐다. 김 군수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한 사건으로 병합해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현수)은 11일 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김성(55) 장흥군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배포된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자신의 전과 기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소명하면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불심검문으로 연행된 암울한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후 관련 소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된대 따라 수사에 착수, 김 군수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군수 소명 내용과 관련,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폭력 사건을 마치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불심검문으로 연행돼 그로 인해 부당하게 형사처벌된 사건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폭력 사건은 지난 1980년 4월 중순 발생했고 김 군수 연행 및 석방은 5월 중순, 해당 사건에 대한 자백 및 구속은 6월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뱃값 인상에 '사재기 인증샷' 등 시끌

납세자연맹 “흡연율 감소는 핑계...가격 인상 반대”

담뱃값 인상 소식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벌써 ‘담배 사재기’ 인증샷(사진)이 올라오는 등 곳곳에서 사재기 조짐이 일고 있다.

11일 새벽 4시께 한 남성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담배 10보루(100갑)를 높게 쌓아 놓은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담배의 가격은 무려 25만 원(1갑·2500원)에 달한다.

그는 이 게시물에 “담뱃값이 오르면 길래 밟고 싶었는데 안 오르면 안 밟는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게시물에는 현재까지 페이스북 유저 7만6221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699명이 공유하는 등 반응이 뜨겁다. 밟지도 무려 1만 2000건이 넘었다.

해당 게시물에 페이스북 사용자 김○○씨는 “돈만 있으면 사재기해서 값이 올랐을 때 4000원에만 팔아도...”라는 댓글을 달았고, 임○○씨는 “담배를 끊을까? 사 놓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사재기 벌금이 5000만 원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지 말고 끊어보자”, “제발 길에서 담배 피면서 남한테 피해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 광주시 일부에서도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손은 학(23·광주시 광산구 신촌동)씨는 “남아 있는 용돈에서 약간의 여유를 빼놓고 담배를 구입해 조금씩 비축할 계획”이라며 “이제는 담배 한 대 나눠 필 수 있는 여유조차 없어졌다”고 하소연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광도형(27·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담배를 보루로 사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는데 최근 보루째 구입하거나 대학생들의 경우 3~5갑씩 사가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2004년에도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국민건강부담금을 금연사업에 사용한다 말했지만 단 1%만 사용했을 뿐”이라며 “흡연율 감소는 구호일 뿐, 재정확충이 주목적인 담뱃값 인상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

‘괴메일’ 관련 교수 조사...이낙연 지사 동생도 소환 방침

경찰, 수사 본격화

경찰이 주승용 의원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괴메일’ 유포 사건과 관련, 고발된 전 모 대학 겸임 교수 소환을 시작으로 괴메일 출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낙연 전남지사 동생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1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순천경찰은 이날 이낙연 전남지사 동생인 전남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전 전남 모 대학 겸임교수가 주승용 당시 전남지사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 제기를 주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전 전남 모 대학 교수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일단, 해당 교수를 상대로 제기된 연루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시

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함께 고발된 이 지사 동생에 대해서도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괴메일 사건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8일 ‘나비나비’라는 이름의 발신자가 주 의원의 박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남대 논문 심사위원과 지도교수들은 논문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관련 의혹은 선거 과정에서 경점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발신자 추적 끝에 메일 발송자가 이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양모씨인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양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사건은 이 지사 동생 등이 연루됐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점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ikim@

합의 안해준다면 부녀자들 보복폭행 ‘동네조폭’ 철창행

성녀들

○...동네 부녀자들 등 폭행한 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보복폭행을 한 이른바 ‘동네조폭’이 철창행.

○...1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나모(46)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2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A아파트 상가 앞에서 이모(여·55)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목을 비트는 등 지난 한 달간 4명의 부녀자를 폭행한 혐의.

○...나씨는 A아파트 상가 등지에서 패거리와 어울려 다니며 부녀자를 괴롭히고 상가 유리창을 파손한 뒤 피해자가 고소하면 합의를 종용하며 괴롭혔는데, 경찰은 나씨와 같은 동네 조폭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대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정원
 H.010-8572-8985 T.262-8985

- **진주빌라 89㎡**
북구 오치동 1층, 구조좋은 매매가 5950만원
- **임야 36026㎡**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차선 포장도로 접 전면 85m 접 매매가 2억1800만원
- **다가구 주택 부지**
북구 오치동(도로 접) 대지 928㎡(280평) 매매가 4억8000만원

★ **금매물 접수합니다**

오피스텔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53평 - 13층**
코너, 전망좋은 전체 오피스, 사무실 적합 매매 - 1억5500만원
- **29평 - 12층**
양동 하천 방향 전체오피스, 주거용 매매 - 7200만원 주인직매 010.3180.8900

아파트형 콘도/ 별장/ 펜션 분양
 문의, 010-6832-8900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 ★ **아파트 개념**
전기, 수도, 가스 개별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 **산속의 공전**
화개장터, 쌍계사, 섬진강 근접거리
- ★ 2층, 28평, 1세대
- ★ **총 55세대 (18/28/56평)**
- ★ **28평 - 9000만원(융자 2300만원 포함)**

대명리조트와 교환 가능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